

[격차사회 -> 계층 사회로의 전환]

□ 기업사회에서의 격차사회

- 소득격차와 계급 격차 : 남녀격차, 생산직과 사무직(봉건적 차별)
- 전후의 격차 축소
- 1975년 이후 규모별 격차와 연령별 격차가 확대(연공 시스템 강화,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, 임금인산 파급효과 약화) : 기업규모별 격차가 크고 계급별 격차가 적은 사회

□ 노동시장 유동화(1990년대) : 신자유주의 개혁

- 신규 채용의 축소, 무업자 증대
- 중고령자 고용규모 축소와 여성노동자의 비정사원화
- 임금하락
 춘투가 임금의 사회적 기준 구축에 실패
 비정사원의 임금 : 연공급과는 다른 횡단노동시장에서 형성
- 2000년대 비정사원화 확대
 간접고용, 파견, 노무공급사업
- 중핵적 정사원과 주변적 정사원의 양극화
- 일본형 고용과 연공임금의 해체 -> 계층사회의 형성
- 기업의존형 생활구조 파탄과 워킹푸어
-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와 규제완화, 비정규직 증대와 워킹 푸어, 노동자간의 아래로의 경쟁

□ 개혁의 필요성 - 노동자 유형의 변화에 대응해야

- 방대한 미조직노동자 / 워킹 푸어
- 일본 빈곤세대의 중심은 워킹 푸어
- > 일본의 노동운동은 빈곤문제와 싸워야 한다

□ 연대의 해체와 개별화

- 빈곤과 실업자가 현재의 상태를 자기책임이라고 생각 -> 빈곤과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
 가족과 기업에서의 탈락은 개인 정체성의 붕괴임 ->생계유지 붕괴는 자기 정체성 붕괴로
- 빈곤의 은폐
- 삶과 생존에 대한 공격
 빈곤층에 대한 구제 자체를 없앴

□ 계층사회에서의 새로운 연대

- 친밀권 - 가족은 더 이상 친밀권으로서의 역할을 상실
 - 개개인의 사상에 관한 사항
 - > 새로운 사회의 연대가 기반할 근거가 사상에 기반한 친밀권
-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려면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와의 친밀관계 형성이 기본

(19세기 후반 영국의 세틀먼트 운동)

- 새로운 연대의 핵심 - 빈자의 자각, 이웃, 생존권의 의식
- 임금인상이나 정치적 활동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음 -> 국민춘투를 되살리자
- 과거의 일본(고도 성장 이전) - 직안투쟁(일자리 요구 투쟁)이 있었음
- 노조는 노동자가 요구하는(치올라) 고용과 생활을 안정시키는 무기가 되어야 함

□ 개인 가입 유니온(지역이나 지역합동노조 :다카수 히로히코)

* 개인가입 유니온을 기존 산별노조외부에 꾸려서 기업별 노조체제를 타파해 나가는 힘으로

* 발전 단계 : 합동노조 단계 ->개인분쟁처리 단계 -> 조직 안정과 유니온 운동 전개 ->노동시장 규제형 유니온

1) 합동노조의 현실과 문제

- 산별로 정리되지 않고 전국일반노조 형태로 확립 ->결국 중소기업노조의 결합체가 되면서 개인가입의 그릇이 되지 않고 기업단위 가입의 형태가 됨
- 산업 업종 연계도 없고, 지역이라는 영지에서 간부와 조직가의 개성에 따른 폐쇄적, 분산적 조직 -> 사분오열된 상태
- 합동노조도 결국은 기업노조의 조직약화와 운명을 같이함

2)순수한 개인가입 노조

- 합동노조 -> 개인가입 노조로의 전환 : 집단분쟁 -> 개인 분쟁으로 변화
- 배경 : 기업소속 노동자가 중심이던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

3) 조직안정과 유니온 운동

- 개인분쟁 처리 단계로 비약적인 발전 이룸 <- 노동시장 변화에 잘 대응
모래밭에 돌상기, 회전문 : 유동적 노동시장의 유목민
- 조직안정의 길
 - * 상호부조와 친선의 역할 : 있을 곳과 할 일
 - 다양한 집단화, 자신의 숙련 향상(노조를 회사와의 대립의 장소로만 인식하지 않음), 다면적인 사회적 기능 수행,

* 노동조합 조직문화의 혁신

개인의 분쟁처리를 개인을 끝내지 않는 운동 : 미국의 계급행동이라는 형태의 소송

개인 분쟁을 집단적인 분쟁으로 연결하는 시도

- 조직화와 산업적 힘의 축적

□ 산업별, 직종별 노조운동

* 방대한 비정규직(비정사원)과 주변적 정사원(정규직) 조직 -> 직종별 재편과 결집

-> 직종별, 산업별 단체교섭 확립

* 산업별 직종별 운동 추진

* 유럽형의 산별노동협약 체제 추구

* 나라의 복지국가 재편을 실현

1) 노조의 노동시장 규제 방법

-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규제하는 중추적 기능이 산업수준에서 작동하지 않음 -> 경쟁과 격차사회 초래

- 규제방법 : 임금 하락에 대한 제동장치의 기준을 설정하여 막음

직종별 임금, 개인가입 유니온이 노조운동을 살리는 해법

- 대책 : 방대한 비정규직을 개인가입 유니온으로 조직 -> 직종별 재편과 결집 -> 직종별 교섭구조 확립

2) 간사이 레미콘 지부

- 산업별 직종별 운동의 가능성

- 집단적 노사교섭기구의 확립

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도 포함하는 교섭을 결의(1973)

교섭대상은 레미콘지부 관련 모든 기업

1998년 춘투에서 레미콘 경영자회와 공동교섭

- 직종별 임금

규칙의 기준으로 직종별 임금을 명확히함

- 직종별 노조

산업별(레미콘 업계지만 실질적으로는 레미콘 노동자라는 직종이 중심) 개인가입 조직

3) 노조유형과 노동시장 규제

- 산별, 일반노조 : 노동시장 규제형 노조- 미국의 팀스터, 영국의 운수일반과 도시일반 노조

미국과 영국의 일반노조 : 복합산업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음. 영국의 트레이드 그룹(업종별 조직)이 있어서 이것이 단체교섭 기구에 참여

- 교섭방식

미국(패턴교섭)이고 유럽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교섭

- 노동자가 연대하는 결집축 : 산업별, 직종별, 기업별, 지역별

직종별 결집을 통한 노조 형성운동 필요

직종별 결집 ->트레이드 그룹(결정권을 가진 산별노조의 기초로 위치) -> 네트워크 조직 : 단체교섭 담당

□ 사회적 노동조합운동 :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치를 수용한 노동조합운동

- 노조의 조직화와 단체교섭의 확립이 좁은 폭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

폭넓은 사회적 연대와 여론형성이 필요

성평등, 생태주의, 반지구화와 같은 노동계층 이익을 넘어서는 시각 확립 필요

□ 복지국가 전략과 노동정치

- 안정화된 격차사회에서 기업의존의 생활구조 : 기업사회가 복지국가의 생활보장 역할 대체

그러나 계층사회의 도래로 기업의존의 생활구조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

기업사회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의 동시 진행 : 기업에 의해 밀려난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의해 높에 추락한 광경

- 기업중심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생활구조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함

- 복지국가 전략의 방대한 추진세력이 등장, 기업주의적 통합 하에서는 복지국가 전략이 곤란

수동적 시민 -> 신자유주의 시민, 계층 사회화, 지역의 황폐화 : 새로운 주체의 등장

- 사회해체 현상의 심화 속에서의 새로운 연대의 방안 모색 : 1995년 한신 대지진에서 구조활동의 자원봉사자 : 자기동일성, 자발적 참여 -> 자원자 동원형 사회통합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

- 노조 조직문화 혁신

동원 ->자발적 행동

자발적 행동을 노동운동으로

□ 새로운 유니온 운동

- 커뮤니티 유니온
- 관리직 유니온, 여성 유니온
- 외국인
- 비정규노동 네트워크
- 전노협계의 지역합동노조